



동우컬럼

마귀를 대적하라

25년간 나를 따라온 성도님 중 한 분이 찾아와 이렇게 간증을 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통해 25년 동안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을 순하게 들어왔는데, 사실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바로 ‘부정적인 상대의 말에 반대로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요. 제가 다리가 많이 아파서 못 걸었어요. 가족들은 저를 염려한다고 ‘당신, 그러다 영원히 못 걸으면 어떡해요.’, ‘아빠, 병이 깊어지니 걱정이예요.’ 라고 늘 말했는데, 저는 그 말을 뒤집어 ‘나는 걸을 수 있다. 나는 다 나았다.’ 라고 말하면서 다리를 흔들었더니 어느 순간 이렇게 잘 걷게 되었어요. 또 하혈을 하더라고요. 아내가 난리가 났지요. 병원에 가야 한다고요. 그러나 제가 한 번 맛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나를 거야. 하혈은 멈출 거야. 귀신아, 가라, 가라.’ 하고 잤더니 다음날 멀쩡한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결국 마음과 입술에서 비롯됨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큰 것을 깨달았다고 말해줬다.

사실 나는 얼마 전에만 해도 매운 것을 못 먹었다. 매운 것만 먹으면 속이 안 좋아서 힘들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은 것은 ‘나는 매운 것만 먹으면 속이 안 좋아.’라는 내 말이 나를 얹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매운 것을 먹어도 속이 편해, 매운 것도 맛있네.’라는 말을 반복했더니 지금은 정말 매운 것을 먹어도 속이 편했다.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하면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기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다. 하나님은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지 않은가. 그러나 ‘저 사람이 우리 교회의 보배야.’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언젠가 보배 값을 하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져다주는 것은
마귀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뒤집어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것이다. 앞의 것은 허상
이고 실상은 내가 생각하고 말한 대로 되
게 되어 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
로 말을 뿌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서 승리하고, 넉넉히 천국까지 가자.

“시청 앞 국가와 민족을 위한 집회, 석가탄일 5월 3일 계약했다. 준비해라.”

지난 2월 23일 목요일 오후 12시 30분
경, 목사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그리고 이어서 행정부로부터 공식 발표가 있었다.

“할렐루야! 5/3(석가탄일) 서울시청광장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성회를 개최합니다.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성회를 열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가와 민족을 위한 성회는 5월 3일(석가탄일) 여러 단체가 신청하였으나 우리가 추천에 당첨된 것입니다.”

을 위한 성회(Prayer Assembly for Our Nation and Country)'라는 타이틀로 준비된다.

이번 성회는 북핵 위기와 미중 간 힘겨루기로 혼란스런 국제정세, 그리고 곧 치러질 2017 대선 등 여러 이슈들이 비등하는 시기에 매우 시의적절할 뿐 아니라 진영 간 갈등의 장이 되고 있는 광장을 기도의 장,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통일을 위한 염원의 장으로 만든다는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노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 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삼상 7:5~14).

술한 전쟁과 멸망의 위기 앞에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이스라엘 민족은 평화와 번영을 누렸다. 이는 우리의 거울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토성회
5월 3일 오후 2시 서울시청광장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서울시청광장은 늘 행사가 이어지는 곳이다. 신고제 형식이라 누구나 집회 신고만 하면 일단 자격이 주어진다. 만일 여러 단체가 몰리는 날이면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목사님은 최근의 국가적 위기에 지속적
으로 경각심을 촉구하시며, 장소만 허락
하면 교단 전체가 함께 모여 국가와 민족
의 안녕과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길 원
하신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결국 이번 5
월 3일 집회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하나
님께서 진정 우리 교단을 향한 기대가 무
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순간이다.
지난 2014년 9월 8일에 이어 오는 5월 3
일 오후 2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
인 서울시청광장에서 다시 개최되는 제
9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는 ‘국가와 민족

이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
일 소돔 성을 가운데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
리라 ~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
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
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
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창18:26~32).
사무엘 선지자가 주도한 미스바 기도성
회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공격으로부
터 지켜주었을 뿐 아니라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 어떤 외침도 없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
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
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
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에

되어 오늘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분명
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애통하는 기도
에 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신 예는 성
경 처처에서 발견된다.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이
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
는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렘29:11).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모두가 이번 성회에 적극 동참하길 촉구한다. 그리하여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우뚝 세우는 새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자.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18:18~35)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성경을 한 구절로 압축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6)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 사랑한다고 한들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은 숭고하고, 헤아릴 수 없는 무궁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요15:12).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까지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은 ‘사랑’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많이 줄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20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심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 사상의 빈곤, 기독교 사상의 몰락이 그 이유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요(요일4:16), 율법의 완성이요(롬13:10), 성령의 열매이며(갈5:22), 믿음보다 큰 것이 사랑일진대(고전13:13) 그 근간이 흔들리니 기독교가 쇠퇴하는 것입니다.

제일 값진 것은 사랑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용서다

여러분, 사랑이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벧전4:8). 즉 허물을 덮어 주는 것이요, 정죄하지 않는 것이요, 용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서 작은 일에도 정죄하고, 용서에 인색하며, 허물이 보이면 파헤쳐 망신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이 마치 정의를 구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아십니까?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3:10). 죄 없는 자가 없고, 허물없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소의 문제이지 죄의 유무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남의 허물을 들추시고 신나서 나발 불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긴 ‘남의 말은 별식과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 정도니 남의 허물이야 산해진미겠지요. 아주 맛나겠지요.

요즘 대선후보들을 보면 자신의 정책노선을 펴기보다는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정치판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회사도, 심지어

가족 간에도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는 두 마리 이상만 같이 놔두면 절대 그릇위로 못 올라온다고 합니다. 서로 물고 뜯고 끌어내리기 때문이라네요. 하나님의 자녀가 계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6:12).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먼저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 하

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신다는 말

씀입니다. 이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

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18:18). 우리가 먼저 얹힌 관계를 풀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리고, 소원하는 것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실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온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녀의 허물을 들춰내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요8:4~5). 이것을 두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하는 겁니다. 그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다? 허리를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무슨 글을 쓰셨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있으나, 아마 ‘의인은 없다.’라고 쓰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죄 없는 자가 만

저 치라’고 하시니 이들도 양심 있는 지라 다 뒷걸음쳐서 도망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아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8:11). ‘너의 허물을 덮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덮으신 것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였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엡2:1).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왜 나를 세 번이나 부인했니?”라고 추궁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21)고 물으시며 지난 일은 언급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지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칼에 베어 손에 상처가 났는데 자꾸 그 상처를 들추시고, 긁는다면 그 상처가 더욱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상처가 아문다고 해도 결국 흉터가 남는 겁니다. 상처는 싸매줘야 낫습니다. 남의 허물도 이와 같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고 다니는 것은 진물 나고 있는 상처를 다시 후벼 파는 격이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으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통탄해하시겠습니까? ‘저 여자는 이혼한 여자래’, ‘저 사람은 사기꾼이래’, ‘저 사람은 어떻게’ 이릅니다. 여러분, 목욕탕에는 때가 있으니 가는 겁니다. 세탁소에는 옷이 더러우니 가는 거고요. 병원은 환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죄인이니까 교회에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사람이 왜 교회에 오냐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건 이렇게 더러운 옷을 왜 세탁소에 가져오느냐고 하는 것과 같고, 몸에 때가 너무 많으니 목

욕탕에 못 들어온다는 것과 같고, 너무 쇠약해져 있으니 병원에 오지 말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앤틱을 좋아해서 외국에 가면 앤틱 박물관을 자주 찾습니다. 거기에 보면 100년도 더 된 자동차들이 있는데, 그건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비쌉니다. 오래되고 낡은 것을 수리해 놓으니 값진 앤틱이 된 겁니다. 허물 많은 자들이 예수로 인해 변화되면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여섯 남자를 데리고 산 여인이 예수로 인하여 변화되더니 온 마을을 뒤엎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바울도 역시 허물 많은 자였지만 변화되더니 사도로서 유럽을 복음화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당신이 나온 웅덩이를 돌아보세요. 절대 남을 정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일만 달란트를 탕감 받고 나와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넣는 자와 같게 됩니다(마18).

오늘날 위기의 원인은 기독교 사상의 빈곤이다

이 세상에 허물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허물이 없었을까요? 그도 급할 때 아내를 누이라 속인 허물이 있는 자요,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까지 자랑하던 욥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 칭함을 받은 다윗도 다 죄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죄와 허물을 들추어 부끄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주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장점은 나팔로 불어주고, 단점은 귓속말로 잠자리에서 해주세요. 마귀가 듣지 못하게요. 그러면 천국 가정이 됩니다. 상대의 허물이나 죄를 사람에게 고하면 정죄요, 비판이지만, 하나님께 아뢰면 기도가 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가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천한 벼를 이간하는 자니라”(잠17:9). 할렐루야!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자신의 가치를 높여라

자기 앞날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배짱이는 그걸 몰라서 겨울에 개미집에 구걸하러 가는 불쌍한 신세가 되었다. 불과 5~6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노는 것이 더 좋아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

나는 중고등부 예배에 가서 학생들에게 말했다. 앞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불과 5년, 길게는 10년 안에 대부분 학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초봉 500만원, 어떤 사람은 400만원... 어떤 사람은 초봉 100만원을 받게 될 것이고, 부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초봉은 어떻게 결정되어 질까? 어떤 사람이 좋은 회사에 입사할 수 있을까? 판단 기준의 90% 이상이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가'로 결정된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고, 게임하지 말고 대신 책을 잡으라고.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나는 또 청장년 모임에 가서도 동일한 말로 권면했다.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노력하고 공부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라고. 그것이 최대의 재테크라고.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뛰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퇴근 후에 책을 읽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장래를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모두가 원하는 부자가 되는 첩경이고,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100년 자란 산삼은 산삼이 사람을 고른다고 하지 않는가? 실력 있는 자는 사람

이 회사를 골라갈 수 있다. 낭증지추(囊中之錐), 주머니 속의 날카로운 송곳은 저절로 주머니를 뚫고 나온다는 말로, 실력을 쌓은 자는 결국 세상에 드러난다는 뜻이다. 그런 자가 되기 위해 지성, 영성, 인격을 갈고 닦아야 한다. 내 가치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조선 시대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은 노비의 신분이었으나 끊임없이 갈고 닦아 결국은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는 과학자가 되었다. 해시계, 물시계, 천체 관측기, 인쇄기 등, 수 없는 발명품을 만들어 조선 시대와 오늘날의 과학 기초를 놓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노비의 신분에서 종3품의 벼슬까지 올라갔다.

환경 탓하지 말고 공부에 최선을 다해라. 노력하라. 지금에 안주하는 자는 퇴보하는 자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기대할 것이 없듯, 손에서 책을 놓은 자에게도 기대할 것은 전혀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그러려면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과 공부를 병행해야 한다.

2017년, 이제 시작이다. 성경을 읽어 영성을 높이고, 책을 읽어 지성과 인격을 높여라. 내 가치를 높여 백년 된 산삼이 되라.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공짜는 쥐뿔에나 있다. 그냥 되는 일 없다. 무한불성(無汗不成), 땀 흘림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 바란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 하나니"(잠24:5).

이시대 목사

뚫어!

얼마 전부터 세면대에 물이 더디게 내려가 사용하는데 많이 불편했다. 임시방편으로 가는 철사로 갈고리를 만들어 점검해보아도 실통치 않았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아주 쉬운 방법이 있었다. 그것은 동네 슈퍼에서 트래핑 1.5~2L을 사다 세면대에 붓고 8~10시간 정도 기다렸다 물을 부으면 뽕 뚫린다는 것이다. 솔직히 반신반의하며 시도해봤는데 어찌나 시원스럽게 물이 내려가는지 답답한 마음이 뽕 뚫렸다.

내가 어릴 적 골목을 돌아다니며 '뚫어!'를 외치는 사람이 있었다. 막힌 하수도나 굴뚝을 뚫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굴뚝이나 하수도 막힌 것을 전문적으로 뚫어주었다. 막힌 것을 뚫게 되면 얼마나 속이 후련할까?

막혀있다는 것, 불통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와 가정이, 어떤 단체가 그만큼 경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통의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단순히 한 부분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부부간에도 소통이 잘 되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고, 회사에서도 사주와 사원들 간에, 국민과 대통령이 원만한 소

통이 이루어질 때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듯이 말이다. 더 나아가 소통의 문제는 신앙인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문제이다. 하나님과의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복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 예비하신 은혜도, 축복도 받지 못하고, 그 결과 쥐엄열매나 먹으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불통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소통 될 때만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가족들과 이웃과 더 나아가 하나님과 막혀있음으로 삶이 답답하다면, 막힌 것을 뚫어야 한다. 영·혼·육의 건강한 나를 만들려면, 뚫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막힌 것을 뚫으려고 손을 내밀어야 하고, 마음을 열어야 하지 않을까?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상처에서 나는 향기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가끔씩 상처를 주기도 한다. 그 상처로 인해 마음속에 독기와 분노가 자리 잡기도 하고, 또한 절망과 분노, 원망이 쌓이기도 한다.

그러나 상처가 없다면? 상처를 이기고 얻은 행복은 엄청난 가치가 있지만, 거저 얻은 행복은 그 소중함을 잊는다. 실패 뒤에 얻은 성공은 귀하고 오래도록 유지하지만, 실패 없이 얻은 성공은 감사와 소중함을 몰라 오래가지 못하듯이.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 주변에 나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할 것이다. 시련과 상처를 겪어야 비로소 인생에서 향기가 난다.

식물들은 상처를 받으면 진하고 싱그러운 냄새가 난다. 풀은 상처에서 그저 조용히 향기를 내뿜을 뿐이고, 향나무는

자신을 찌른 도끼에도 향을 묻힌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런 존재이다.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 오신 예수님을 유다는 배신하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백성들은 모욕하였다. 그럼에도 끝까지 인간을 사랑하시어 인간의 죄를 사하셨다. 예수님이 남긴 향기는 진하여 지금에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엡4:26).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딛고 밑거름삼아 향기를 뿜어내는 것, 그리고 상처를 곱씹고 매몰되는 것 중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선택은 자유이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께 사랑의 향기를 전하도록 하자.

김성일
cre8tor@naver.com



한 번 더 버텨낸다면

몇 년 전 부모님과 함께 10km 마라톤에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줄곧 마라톤을 해오셨지만, 저는 당시 운동을 자주 하지 않아 처음 뛰어보는 거り였습니다.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당연히 끝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뛸 수 있다고 호기롭게 대답하였는데, 뛰해보니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완주할 수 있다는 말을 뱉어 버렸으니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고쳐먹고 끝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몸을 내맡겼더니 죽을 만큼 힘들다고 느꼈던 순간을 이겨내고 결국 목표점을 찍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버텨보았더니 생각보다 제 다리와 심장이 강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삶은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할 때 보통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정하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티는 힘을 잘 길러 나가려면 더 이상 못하겠다고 싶을 때 딱 한 번만 더 해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 그만두거나 그전에 지레 그만두게 되면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

데 늘 발전도 없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2015년 서울대 학위수여식에서 이례적으로 뇌성마비 2급의 여학생이 졸업연설을 위해 강단에 올랐습니다. 생후 11개월에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일평생 장애인으로 살며, 늘 자신은 할 수 없을 거라는 편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야 하고, 글씨도 느리게 쓸 수밖에 없는 신체적 제약이 있지만, 편견에 맞서 한 번 더, 두 번 더 재할과 공부를 버텨내었더니 결국 서울대 졸업장을 얻었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몸의 근육이 힘든 근육운동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마음의 근육도 고난을 통과하며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일평생 함께 가야 할 문제와 수고로움 속에서 매번 한 번 더, 두 번 더 적극적으로 버텨낸다면 심적·영적 근육이 단단해져서 환란, 인내, 연단,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삶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고난을 통해 고난을 다룰 줄 알았던 바울처럼 말입니다.

김고은
khjc77@hanmail.net

거북이 인생

내 직업은 대학원 학생이면서 학원 선생
님이다. 보통, 석사일 때는 공부만 하는 친
구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과정보도 짧고, 부
모님들이 여러모로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사 과정이 되면, 부모
님의 지원이 끊어지거나 본인 스스로 부
모님의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 그래서 석
사 때 낯고 기던 친구들도 박사 과정에 와
서는 학업과 생업을 병행하느라 모두 허
덕거린다.

나 같은 경우는, 박사도 석사도 아닌 대
학교 1학년 때부터 학원 강사를 시작했
었다. 학원에 있는 크고 작은 잡무를 처
리하면서 시작했던 일이 벌써 15년이 되
었다. 그래서 나는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
로운 삶을 살면서 내 또래가 즐기지 못한
여유를 누리며 살았다. 하지만 나는 정신
적으로, 또 학업에 대해서는 항상 결핍을
느끼며 지냈다. 공부 시간이 부족하고, 논
문 쓸 시간이 부족하고, 내 지식이 부족해
서 항상 괴롭기만 했다. 쓸데없는 자기감
은 나를 방황하게 하였고, 석사 과정을 마

치는 데에만 3년을 더 쓰기도 하였다. 나
는 주위 친구, 동료들보다 아는 것도 없
고, 모르는 것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없
기 때문이다.

얼마 전, 동료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
던 중에 그동안 내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았는지를 깨달았다. 졸업 조건을 충족
해야 하는 외국어 시험, 제2외국어 시험
을 모두 패스하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전
공 시험도 패스하였다. 그리고 졸업을 위
한 소논문 3편 자격도 충족한 상태였다.
사실 나는 소논문이 4편이고, 그 중에 한
편은 국제 논문이며, 앞으로 1~2편이 더
나올 예정이다. 동료들은 시험도 다 패스
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소논문을 발표하
지 못해 모두 머리를 싸매고 있었다. “넌
언제 그걸 다했냐? 진짜 부럽다.”, “부지
런하네. 공부 열심히 했나봐.” 등등의 말
을 들으며 난 무척 당황했었다.

나는 늘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 줄 알았
다. 늘 뒤에서 허덕거리며 그들을 따라가
고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토끼를

앞지른 거북이가 되어 있었다. 매일 밤, 소
논문과 학회 발표를 준비하면서 몸부림치
고 괴로워했었다. 압박감을 못 이기고 가
족들에게 온갖 짜증과 화를 내기도 했고,
하다하다 지칠 때는 주님께 기도하는 수
밖에 없었다. 내 시간도 체력도 실력도 모
두 주님께 맡겼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
어보니,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마19:30)는 하나님의 말
씀이 이루어져 있었다. 모든 것이 다 주
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매
일 제자리걸음으로 괴로워했는데, 주님은
내 발길을 인도해주시고 계셨다. 하나님
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그저 가슴이 먹먹
해진다.

여전히 부족한 것투성이지만, 지금의 나
는 토끼를 앞지른 거북이가 되어 또 다른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하러 교토로 간다.
진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내 발 길을
인도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린다.

전훈지
ppjee@hanmail.net

Good News

1912년 당시 영국의 세계 최대 호화여
객선 '타이타닉호'는 미국 뉴욕항을 향하
여 처녀항해를 하는 도중에 거대한 빙산
과 충돌하여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
가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약2~3시간이
걸렸는데, 배에는 구명보트가 충분치 않
아서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에게 우선
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구명보트를 내리려고 하는데 순
서를 기다리던 한 귀부인이 갑자기 객실

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원
이 필사적으로 막아서자 보석상자를 두
고 왔다고 울면서 통사정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5분간의 여유를 주었습니
다. 객실까지 가는데 1분, 보석상자를 찾
는데 1분, 다시 돌아오는데 1분으로 3분
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데 5분이 지나도 오지 않고, 또 5분을 더
기다렸는데도 감감 무소식이라 안타깝
지만 마지막 구명보트는 떠나고 그 부인
은 배와 함께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 여인은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자
신의 보석상자만 챙겨왔으면 될 터인데

선실 바닥에 흩어져있는 보석들을 보고
욕심이 생겨나서 그것을 줍느라 배가 침
몰하는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막8:36).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천국의 영생복락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
다. 지혜로운 자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
고 구원받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도 중
요한 일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global study ::

❖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Water that is already flown cannot move the mill wheel.
用流出去的水不能转动水车。

❖ 감을 건넌다면 뱃목을 끊어 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

You have to make a decision,
once you've moved forward from your past.
过河弃船的决断是需要的。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턱관절 장애

18세 A양은 오른쪽 턱관절이 아프다. 뒷
목이 당기고 어깨도 잘 아프다. 만성피
로증후군이 있고 경도의 척추측만증으
로 허리와 오른쪽 다리도 자주 아프다.
소화불량과 설사, 변비가 반복된다. 가족
들은 A양의 증상을 고3 수험생의 심리적
압박에 의해 생긴 께병정도로 여기고 도
무지 이해해주지 못한다. 턱관절 전문병
원을 찾아 교정치료를 상담하다 이 모든
증상이 턱관절 장애로 인한 것임을 비로
소 알게 되었다.

사람의 머리는 투구와 같은 형태의 두개
골과 그 밑에 하악골이 그네처럼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형상이다. 머리뼈와 아래
턱을 연결시켜 주는 부분은 마치 경첩과
같은 턱관절이 있어 우리는 마음대로 음
식을 씹을 수 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
고 또 울고 웃고 표정을 지을 수 있다. 아

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품을 하고 잠든 후
에도 숨을 쉬고 침을 삼키는 행위조차 턱
관절의 도움 없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밤낮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턱관절이 고
장이 나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다고 가정
해보자. 고통스럽고 심각한 상태가 될 것
이다. 하루에 수천 번씩 사용하기 때문
에 정작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고 있
는 듯하다.

인체의 골격은 마치 가늘고 기다란 탑과
같이 생긴 척추위에 4.5~6kg의 볼링공
만큼 무거운 머리를 얹어 놓은 것 같은
불안정한 형태의 구조로 되어있다. 척추
는 26개의 척추뼈로 쌓여져 있어서 조금
만 무게 중심이 흐트러지면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구조 위에서 머리가 무게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머리의 무게 중심은 아래
턱의 저울추와 같은 역할에 의해 결정되

며 턱관절이 움직일 때 중심축은 제1경
추와 제2경추가 맡고 있다. 그러므로 턱
관절이 한쪽으로 틀어지면 당연히 제1경
추와 제2경추가 틀어지게 되며 그 밑에
있는 척추들도 도미노처럼 서서히 틀어
지게 되어 결국은 척추 전체가 휘어지게
된다. 인체의 대들보라고 하는 척추가 휘어
지게 되면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기게
되어 여러 가지 전신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턱관절은 전신건강의 초
석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다. 따라서
턱관절에 외상을 입거나 이를 악무는 습
관, 턱 괴는 습관, 한 쪽으로만 씹기, 지
나친 스트레스는 턱관절 장애를 초래하
는 원인이 되므로 유의하자.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남기는 삶!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황금률 중에 하
나는 '대접받고 싶은 만큼 먼저 주라'(마
7:12)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웃을 잘
보살피거나 도움을 준 사람은 그렇지 않
은 사람에 비해 장수한다는 통계가 나왔
습니다.

미국 미시간대학 교수팀이 423쌍의 노
인부부를 대상으로 5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이웃에게 도움을 주거나 배우자를
정성껏 잘 돌봐준 노인에 비해 이웃의 불
행을 보고도 돕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사
는 사람의 사망률이 2배나 높다는 발표
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브라운 교수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도 상당한 가치
가 있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을 위한 배려나 봉사가 곧 나의 건강
과 장수를 가져다주는 놀라운 덕목이 되
었다는 것이지요.

엄청난 유산을 자녀가 아닌 사회에 기증
하고 일생동안 선한 일에 투자한 록펠러
(1839~1939)가 53세에 중병에 걸려 죽
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위기를 맞보고도
치유함을 받아 99세를 살았고, 아프리카
에서 의료봉사로 평생을 바친 슈바이처
박사의 수명이 90세였습니다. 주는 사랑
에는 출구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어
온 사랑이 쌓여 가득차면 그 사랑의 온도
에 온도가 더해져 더 따뜻한 사랑으로 나
에게 쏟아져 내리기 때문 아닐까요?

탈무드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잘 사는 것이다. 그런데 잘 사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 그것은 남기는 삶
을 사는 것이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이제는 백세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사
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
래 사는 것입니다.

목전의 이익을 좇지 않고 약자를 보살피
주는 삶! 바로 그 삶이 남기는 삶이 아닐
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
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
로 받을 것이니라”(눅6:38).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